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시에 관한 주관성 연구

이연성*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시에 관한 인식유형과 그 특성을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실시할 입시에 관한 33개의 진술문을 표집한 후, 학부모 각 31명씩을 대상으로 Q-sorting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QUANL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는 4개의 인식유형으로 드러났다. 이를 살펴보면, 유형 1의 '성공 = 자녀의 만족'형은 입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 스스로의 만족이 성공한 삶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유형 2의 '입시준비 = 학부모조언'형은 입시 준비에 있어 자녀와의 대화를 중요시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조력자가 되어 입시와 진로를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3의 '학교교육 = 전인추구'형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유형 4의 '입시 = 자녀선택준중'형은 입시는 자녀 삶의 한 과정이므로 입시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해주기 위해 자녀와 대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유형화한 후 그 특성에 따라 자녀의 입시와 진로에 대한 학부모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 체계의 구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건강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이해와 실현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녀의 입시를 앞둔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초등학생 학부모, 입시, 학부모교육, Q 방법론

논문 투고일: 2025. 11. 29. 최종심사일: 2025. 12. 02. 게재확정일: 2025. 12. 26.

* 본 논문은 연구자의 2023년도 박사학위 논문의 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발전시킨 논문임.

** 백석대학교회 교육전도사

Corresponding Author: Lee, Yeon-Sung, Doctor of Education, Education Assistant Pastor, Baekseok University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E-Mail: iosua24@b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초등학생은 발달에 있어 신체, 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밀접하게 고른 발달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성경환 · 유재봉, 2023). 특히 이 시기에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의 형성을 이루는 것은 이후 성인으로서 성공적인 관계 형성을 이루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이화영 · 여은진 · 이경옥, 2007).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은 초등학생 자녀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를 함양시키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 시대의 교육은 인지적인 측면의 학업 성취만을 강조하기에 입시준비에 대한 높은 교육열로 나타나고 있다(이종각, 2013). 그 결과, 입시 대비를 위한 조기 선행 학습으로 초등학생 자녀들은 항상 경쟁구도의 학습과 학업스트레스 속에서 좌절감을 겪으며 자라고 있다(이혜준 · 한기순, 2024).

2023년 5월에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가장 큰 고민에 대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7.7%의 ‘학업에 관한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15.1%로 확인되었다(연합뉴스, 2023). 이정아(2015)는 이 시기 학부모들의 성취압력과 자녀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관성을 주장한다(이정아, 2015). 다시 말해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가 자녀의 입시성공을 인생의 성공 관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보다 그 이전인 유아기 때부터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교육부와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 학생 수는 전년보다 8만 명이 줄었음에도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였으며, 그 중에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는 가장 높은 11.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같이 높은 사교육 의존도는 초등학생 시기부터 대학 입시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이며 이는 교육의 과열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켜야 할 초등학생 시기에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며 친구들은 학업과 성공의 비교대상자나 경쟁자가 되어 버렸다. 이렇듯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은 그 목적과 방향을 잃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었다(함영주, 2018).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육 현상에 대해 자녀의 입시 경쟁에서 높은 성과를 얻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욕구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동아일보, 2025).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로서 자녀를 교육할 의무와 권리를 지니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최초의 교사이며 그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 올바른 선택과 결정, 이행할 책임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의 학업 성취에 있어 그 결과를 학부모의 구체적인 역할과 노력들로 인정하는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김경리·김영천·조재성, 2022; 이기혜, 2021). 그러나 앞서 볼 수 있었던 지나친 경쟁의식과 교육의 과열화는 이미 왜곡된 교육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김장중(2017)은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머리로는 인성 교육을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녀들에게 입시를 위한 교육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같이 자녀의 교육을 담당한 학부모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부터 조기 선행 교육으로 입시를 대비하는 학부모 개인이 내면에 부여하고 있는 입시관의 가치와 그 의미들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인식을 통해 학부모의 역할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대상자의 속성을 알아보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 교육의 현상 속에서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자녀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이루도록 양육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의 교육체계와 학부모교육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입시와 학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참여(박상완, 2023; 엄문영·오범호·유지성, 2022; 주영호, 2020)와 학부모의 교육관여와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이승현·김무영·엄문영, 2024; 문희원, 2023; 김은정·임성택, 2020; 주동범, 2018; 최윤진·심재휘, 2018),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장준호, 2025; 이영희·윤지현·백병부·이은비, 2019; 이종각, 2013)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시에 관한 자결적 주관성 즉, 연구 대상자가 스스로의 의견에 의미를 부여하여 외부의 설명이 아닌 내부로부터 이해하고 접근하는 연구는 제한적이기에 이와 같은 포괄적인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활용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시에 관한 인식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접근 방법이다. 개인이 지닌 주관적 가치, 인식, 태도 등을 연구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학부모들이 지닌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하겠다(Mckweon & Thomas, 2013). 또한 서로 다른 주관적인 인식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며(정희정, 2021), 질적인 개념을 양적으로 표현하는 질적

연구와 양적연구의 상호보완된 혼합연구방식이다(길병옥 · 이소희 · 이송이 · 정희정, 2020; McKeown & Thomas, 2013). 개인이 지닌 주관적인 가치관을 정량화하고 가치유형을 분석하므로 질적 연구에 있어 발전적인 접근양식이라 하겠다(Shemmmings,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지닌 입시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을 구조화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로, Q 방법론이 매우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Q 방법론을 사용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시에 관한 인식유형과 특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학부모의 입시에 관한 인식유형과 특성을 파악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교육의 방식과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가 학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시에 관한 인식유형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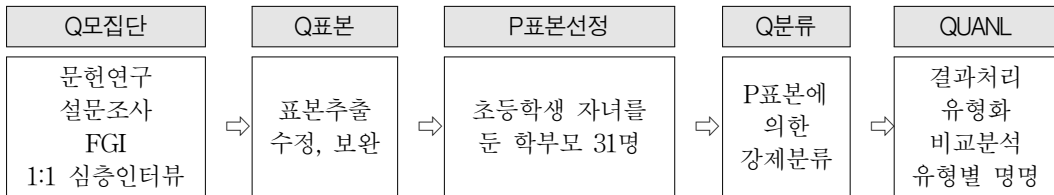
연구문제 2.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시에 관한 인식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입시에 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구조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학부모들의 주관성을 구조화하여 밝히기에 유용한 Q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시에 관한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문헌과 설문,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인

식을 탐색하며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를 보다 폭넓게 도출할 수 있었다(Krueger & Casey, 2014). 또한 1:1 심층인터뷰를 통해 Q 표본을 도출하였다. 이후 P표본의 선정과 Q 분류 이후 결과처리 및 유형화와 비교 분석 등의 다섯 단계를 거쳤으며 본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절차

1) Q 표본의 도출

본 연구는 Q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표적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1:1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진술문을 확보하기 위하여 1차로 입시와 학부모의 역할에 관한 주제로 문헌을 통한 선행연구로 384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으며, 2차로 본 연구의 P표본과 동일한 학부모와 입시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교육종사자, 입시전문가를 포함한 총 45명을 대상으로 하여 개방형질문지와 FGI, 1:1 심층인터뷰를 통해 의견들을 취합한 결과 총 127개의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범주별로 가독성,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간결하고 매끄러운 문장으로 수정하여 본 연구의 대표성을 띤 진술문으로 44개를 도출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학교교육전문가 1인과 Q 전문가 1인의 검토를 통하여 입시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에 가장 대표성을 띤 진술문 33개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확정된 Q표본에 대해서 P표본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3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Q 표본은 <표 1>과 같다.

<표 1> Q 표본

번호	진술문
1	자녀학업은 학부모의 역할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2	학교는 입시교육에 앞서 진인교육에 힘써야 한다.
3	공부는 학업적 성취를 통한 명문대 진학을 위한 것이다.
4	성공은 민주시민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5	입시제도는 불공정하지만 따라 갈 수밖에 없다.

6	나의 자녀교육관(신념)은 주변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7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잠, 스트레스 등은 참아내야 한다.
8	입시에 대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다.
9	사교육 없이 입시에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0	학부모는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이다.
11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입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12	공부는 다른 이들을 돕고 나누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13	학교는 입시에 필요한 활동과 체험 등을 잘 지도, 관리하고 있다.
14	내 자녀의 입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15	자녀의 입시에 대해 학부모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6	학교는 학생의 진로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17	입시과정에서 온 가족이 자녀 중심으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
18	입시의 성공은 보장된 사회진출의 발판이다.
19	입시를 준비하며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20	입시의 성공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21	성공한 삶은 자신(자녀)이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다.
22	대한민국 입시 제도는 개혁될 수 있다.
23	자녀의 입시결과는 부모의 자녀교육 성적표이다.
24	성공을 위한 최우선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25	다른 이들보다 안정된 직장과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다.
26	공부는 자녀가 스스로 계획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27	자녀교육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28	공부는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29	학부모는 자녀가 재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도록 도와야 한다.
30	학부모는 자녀 학업을 위해 교육 매니저 역할을 해야 한다.
31	입시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32	성공은 자신의 특성에 따라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33	자녀 교육에는 학부모의 희생이 따른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P표본은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23년 8월에서 9월까지 Q 분류(Q sorting)를 실시한 인구학적 특성의 성별은 남 6명, 여 25명, 연령은 30대 1명, 40대 29명, 50대 1명이었다. 학력은 모두 대졸이었으며 직업은 주부, 사무직, 연구원, 자영업 등 다양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연구목적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동의한 경우는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연구에 참여하였다.

3) 자료수집 절차

Q 분류는 참여자 스스로가 진술문을 비교하여 순서를 정하고 제시된 분포도에 맞게 주관성을 표현해 나가는 방식(김홍규, 2008)이다. 주관적 인식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입시에 대한 견해와 일치 정도에 따라 먼저 긍정, 중립, 부정의 세 범주로 구분하게 한 후, Q 분류 분포도에 강제 분포(forced distribution) 방식을 적용하여 배치시키고 양극단에 놓인 Q표본에 대한 이유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모든 Q 분류가 완료된 이후 입력된 자료는 QUANL PC Program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연구자가 연구주체에 대하여 이론적인 틀이 있지 않거나 Q 표본 분류 등의 면담과정에서 Q 표본 분류를 하는 특정 시각을 감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길병옥 외, 2020). 이러한 자료를 점수화하고 부여된 점수를 진술문 번호순대로 코딩을 실시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를 결정짓기 위하여 고유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다양한 요인수를 입력시키는 과정을 거쳤으며, 자료처리 결과를 토대로 분류된 유형을 분석하여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명명하였다. 또한,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응답자의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고 유형별 특성을 심층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결과분석

QUANL PC 프로그램을 사용한 Q표본을 분류한 연구결과는 표 2와 같이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의 입시에 관한 인식유형은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Q 방법론에서 분석한 유형은 특정 주제에 대해 비슷한 인식을 가진 참여자들의 관성 묶음으로 정리되며(김홍규, 2008) 각 유형의 아이겐 값(Eigen Values)은 각 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고유 값으로 큰 수가 나올수록 요인이 변수들의 분산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분류된 4개의 유형의 설명량은 전체변량의 68.11%으로 나타났다.

<표 2> 4가지 유형의 고유값(Eigen Value)과 변량비율

	I	II	III	IV
CHOSEN EIGENVALUES(고유값)	15.3182	2.6444	1.6134	1.5386
TOTAL VARIANCE(총변량)	.4941	0.0853	0.0520	0.4096
CUMULATIVE(누적변량)	.4941	.5794	0.6315	0.6811

다음으로 분류된 네 가지 유형의 상관관계는 각 유형에 따른 유사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유형별 특성을 비교하면 공통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김홍규, 2008; 장유정·정희정, 2020). 상관관계의 경우 상관계수(r)가 높을수록 상관 정도가 높고 상관계수(r)가 낮을수록 그 상관 정도는 낮다고 볼 수 있으나 Q 방법론에서는 유형을 발견하는 것이 초점이므로 상관계수가 높다고 해서 각 유형 간의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김홍규, 2008). 따라서 다음의 결과로 이론적, 개념적으로 연계성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3> 초등학생 학부모의 각 유형간 상관관계

내용/유형	I	II	III	IV
I	1.000			
II	.553	1.000		
III	.485	.400	1.000	
IV	.660	.599	.533	1.000

2. 입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유형별 특성

1) 유형별 인자가중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인식유형 파악을 위하여 실시한 Q 표본 분류 결과에 따라서 분류된 인식유형별 인자가중치는 유형별로 인자가중치가 높을수록 유형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대표성을 나타낸다. 네 가지 유형별로 나타난 인자가중치는 표 5와 같으며, 유형 1은 P=11.이 2.1394, 유형 2는 P=13이 1.9915, 유형 3은 P=2가 1.3741이며, 유형 4는 P=5가 1.3324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유형 1: ‘성공 = 자녀의 만족’형

유형 1은 자녀의 입시에 대해 ‘성공 = 자녀의 만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성공을 외적 성취보다 내적 만족과 행복에서 찾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에게 있어 성공은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으며, 학업은 입시 경쟁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녀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고 이를 지지하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입시 과정을 함께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장 동의를 보인 진술문으로는 Q21의 ‘성공한 삶은 자신(자녀)이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다.(z=1.88)’이었으며, 반면 Q3의 ‘공부는 학업적 성취를 통한 명문대 진학을 위한 것이다.(z=-1.73)’강한 비동의를 나타냈다. 유형 1의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 27은 ‘자신의 만족 없이는 행복할 수 없고, 행복이 없이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입시 준비를 하면서 이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자신이 만족하는 일(직업)과 여가활동을 통해 워라밸이 있고, 즐기며 사는 삶이 행복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유형 1의 대표적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1	성공한 삶은 자신(자녀)이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다.	1.88
24	성공을 위한 최우선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1.73
32	성공은 자신의 특성에 따라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1.52
8	입시에 대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다.	1.42
16	학교는 학생의 진로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1.25
26	공부는 자녀가 스스로 계획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1.22
28	공부는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1.10
19	입시를 준비하며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1.01
25	다른 이들보다 안정된 직장과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다.	-1.07
20	입시의 성공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1.11
23	자녀의 입시결과는 부모의 자녀교육 성적표이다.	-1.22
7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잠, 스트레스 등은 참아내야 한다.	-1.37
1	자녀학업은 학부모의 역할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1.66
3	공부는 학업적 성취를 통한 명문대 진학을 위한 것이다.	-1.73

3) 유형 2: ‘입시준비 = 학부모조언’형

유형 2는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자녀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에 ‘입시준비 = 학부모조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은 성공을 외적 성취가 아닌 자신의 만족과 행복에서 찾으며, 그 기반은 올바른 가치관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학부모로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가 입시 중심을 넘어 전인교육과 진로 다양성 존중에 힘써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교육 없이 입시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Q19의 ‘입시를 준비하며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z=1.70)’와 Q9의 ‘사교육 없이 입시에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z=1.01)에 가장 동의하고 있으며 반면 Q20의 ‘입시의 성공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z=-1.92)’에 비동의 하였다.

유형 2의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 30은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입시와 진로에 대한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Q19에 대한 또 다른 진술에는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좌절과 고민하는 순간도 자주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많은 대화를 나누며 아이가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부모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11).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에게 조언해줄 수 있다(P 23).’가 있었으며, 결과는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유형 2의 대표적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9	입시를 준비하며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1.70
24	성공을 위한 최우선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1.51
16	학교는 학생의 진로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1.44
21	성공한 삶은 자신(자녀)이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다.	1.28
2	학교는 입시교육에 앞서 전인교육에 힘써야 한다.	1.06
8	입시에 대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다.	1.06
9	사교육 없이 입시에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01
6	나의 자녀교육관(신념)은 주변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1.05
13	학교는 입시에 필요한 활동과 체험 등을 잘 지도, 관리하고 있다.	-1.23
22	대한민국 입시 제도는 개혁될 수 있다.	-1.26
30	학부모는 자녀 학업을 위해 교육 매니저 역할을 해야 한다.	-1.32
23	자녀의 입시결과는 부모의 자녀교육 성적표이다.	-1.37
31	입시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1.66
20	입시의 성공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1.92

4) 유형 3: ‘학교교육 = 전인추구’형

유형 3은 자녀에게 전인교육과 올바른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입시교육보다 전인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기에 ‘학교 = 전인교육추구’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 3은 Q2의 ‘학교는 입시교육에 앞서 전인교육에 힘써야 한다.(z=1.91)’와 Q24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z=1.91)’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Q4의 ‘성공은 민주시민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z=1.42)’에도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반면 강한 비동의 항목은 Q22의 ‘대한민국 입시 제도는 개혁될 수 있다.(z=-1.05)’이다.

유형 3의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 19는 ‘사회 속에서 인성교육의 부재를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Q2에 대한 이외 진술은 ‘입식 교육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난 전인교육이 필요하다(P 20).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상정했을 때 바른 인성이 필수다. 왜곡된 인성과 가치관으로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성공은 사회적 해악이기 때문이다(P 31).’라고 진술하였으며,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유형 3의 대표적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	학교는 입시교육에 앞서 전인교육에 힘써야 한다.	1.91
24	성공을 위한 최우선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1.91
4	성공은 민주시민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1.42
21	성공한 삶은 자신(자녀)이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다.	1.42
26	공부는 자녀가 스스로 계획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1.42
7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잠, 스트레스 등은 참아내야 한다.	-1.01
33	자녀 교육에는 학부모의 희생이 따른다.	-1.01
11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입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1.16
23	자녀의 입시결과는 부모의 자녀교육 성적표이다.	-1.18
15	자녀의 입시에 대해 학부모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2
12	공부는 다른 이들을 돕고 나누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1.32
9	사교육 없이 입시에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33
22	대한민국 입시 제도는 개혁될 수 있다.	-1.50

5) 유형 4: ‘입시 = 자녀선택존중’형

유형 4는 자녀가 자신이 선택한 입시의 길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학부모의 역할이라

고 생각하기에 ‘입시 = 자녀선택준중’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 4는 Q8의 ‘입시에 대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다.(z=1.79)’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Q10의 ‘학부모는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이다.(z=1.56)’, Q19의 ‘입시를 준비하며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z=1.53)’, Q26의 ‘공부는 자녀가 스스로 계획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에서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반면 강한 비동의 항목은 Q22의 ‘대한민국 입시 제도는 개혁될 수 있다.(z=-1.88)’이며, Q14인 ‘내 자녀의 입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가 있다.

유형 4의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 12는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다.

Q12에 대해 ‘아이의 삶은 아이 스스로 개척하는 큰 선택이므로 그 선택의 대한 입시를 지지해 줄 것이다(P 4).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P 7).’는 진술이 있었으며, 결과는 아래 <표 7>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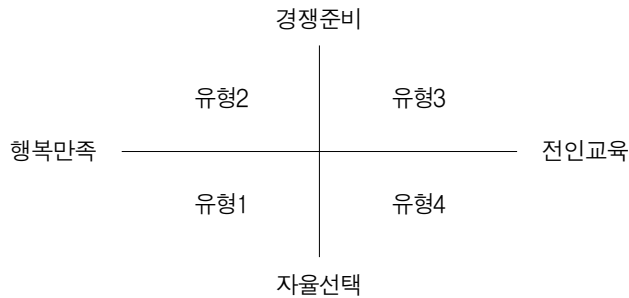
<표 7> 유형 4의 대표적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8	입시에 대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다.	1.79
10	학부모는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이다.	1.56
19	입시를 준비하며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1.53
16	학교는 학생의 진로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1.50
24	성공을 위한 최우선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1.25
21	성공한 삶은 자신이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다.	1.14
26	공부는 자녀가 스스로 계획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1.06
17	입시과정에서 온 가족이 자녀 중심으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	1.01
23	자녀의 입시결과는 부모의 자녀교육 성적표이다.	-1.49
14	내 자녀의 입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1.70
22	대한민국 입시 제도는 개혁될 수 있다.	-1.88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시에 관하여 올바른 입시의 이해, 건강한 자녀 교육관 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Q방법론을 사용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입시에

관한 인식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입시를 주제로 Q모집단을 구성하여 Q표본으로 33문항의 Q진술문을 추출하였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1명을 P표본으로 Q표본 분류(Q sorting)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QUANL PC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입시에 관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인식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4개 유형의 결과 분류

결과로 도출된 4유형의 X축(가로축)을 행복만족, 전인교육으로 보고 Y축(세로축) 경쟁준비, 자율선택으로 보았을 때, 1분면은 행복만족, 경쟁준비로 유형 2이 해당하며 2분면 경쟁준비, 전인교육으로 유형3, 3분면은 행복만족, 자율선택으로 유형1, 4분면은 전인교육, 자율선택 유형4이 된다. 이와 같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입시에 관한 인식을 유형별로 특성을 확인한 후 이를 기초하여 초등학생 학부모의 올바른 입시 이해와 건강한 자녀교육관을 위한 학부모교육의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유형 1의 ‘성공 = 자녀의 만족’형은 입시에 얽매이지 않고 자녀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 스스로의 만족이 성공한 삶이라고 인식하며 자녀의 학업과 입시에 대한 학부모 역할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인간은 발달하는 존재이기에 학부모들은 자녀의 발달단계의 특징을 인식하여 알맞은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학부모 역할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발달과업을 이루고,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자녀의 사회화 과정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전희일(2016)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모교육을 위해 생애발달 주기에 따른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전희일, 2016). 그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는 감정의 발달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녀들을 위한 감정코칭이 확산되고 있다.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만족으로 인식하는 학부모들에게 감정코칭과 같은 자녀의 정서를 다

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거치게 되는 발달단계를 이해하며 적절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형 2의 ‘입시준비 = 학부모조언’형은 입시 준비에 있어 자녀와의 대화를 중요시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조력자가 되어 입시와 진로를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입시에 대한 부담과 학부모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자녀의 진로는 하루아침에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는 자녀의 진로에 있어 다양한 직업의 모델링을 제공해야 한다. 학부모의 양육 태도와 진로 지지 등의 변인들이 자녀의 진로 준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창훈·조영아, 2016).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지지해주고, 함께 소통하며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진로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유형 3의 ‘학교교육 = 전인추구’형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인식하며 자녀의 학업과 학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전인교육에 있으나, 입시위주교육으로 치우친 현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대인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등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부족과 개인의 삶에 행복을 영위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들로 보이므로 현 시대는 전인교육을 넓은 의미의 인격교육으로 궁극적인 실현을 위해 인성개발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유낙주, 2007). 자녀들은 학부모의 삶에 가치관과 태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학부모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학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곧 교육이 되는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학부모교육과정을 세울 필요가 있다.

유형 4의 ‘입시 = 자녀선택존중’형은 입시는 자녀 삶의 한 과정이므로 입시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해주기 위해 자녀와 대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내 자녀에게 입시는 선택이고 공부도 자신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기에 학부모의 역할도 낮게 인식된다. 미국의 교육가 윌리엄 아서 워드(William Arthur Ward)의 “평범한 교사는 말로 가르치고, 좋은 교사는 설명하며, 훌륭한 교사는 보여주고, 위대한 교사는 영감을 준다.”고 말하였다. 학부모는 자녀와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대화 가운데 학부모는 자녀에게 발전적인 방향의 좋은 질문들을 통해 자신이 사고하고 있는 데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 노력을 하게 된다(도미향, 채경선, 2006). 자녀가 입시에 있어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은 생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을 위한 학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입시에 관한 인식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인식 유형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나아갈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이야기한 머리로는 인성교육을 원한다는 김장중(2017)의 주장과 같이 학부모들의 입시에 대한 인식은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만족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인식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부모들이 자녀의 입시를 현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고,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자녀의 입시와 성공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자녀교육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반복적인 학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교육의 방식과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강영식 · 오경숙 · 김혜영 · 박창욱(2016). **부모교육 : 부모상담하기·부모교육하기·부모참여지원하기**. 공동체.
- 길병옥 · 이소희 · 이승이 · 정희정(2020). **Q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김경리 · 김영천 · 조재성(2022).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위한 어머니의 교육적 실천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의 곰 엄마들. **질적탐구**, 8(2), 1-30.
- 김은정 · 임성택(2020).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 귀인성향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학부모연구** 7(2), 49-69.
- 김장중(2017). 왜 학부모는 교육 주체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 학부모의 지위와 역할의 재검토. **학부모연구**, 4(2), 147-172.
- 김홍규(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도미향 · 채경선(2006). 부모 자녀관계 코칭기법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부모교육연구** 3(2), 69-89.
- 동아일보(2025. 3. 14). 학생수 8만명 줄었는데, 작년 사교육비 29조 '역대 최대'. 최예나 · 김민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1140>.
- 문화원(2023). 학부모 학교참여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 참여 격차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75-109.
- 박상완(2023). 교육정의의 개념과 기본 원칙 재탐구. **교육행정학연구**, (41)1, 377-411.
- 성경환 · 유재봉(2023). 초등학생의 사교육이 또래관계 및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6), 787-799.
- 엄문영 · 오범호 · 유지성(2022). 학부모 학교참여 영향요인 분석. **학부모연구** 9(1), 61-81.
- 연합뉴스(2023. 5. 2).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서혜림,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2105800530?section=search>.
- 유낙주(2007). 전인교육 실현에 관한 고찰 - 초 · 중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26(2), 217-245.
- 이기혜(2021). 계층과 대입전형 대응 전략의 관계. **한국교육**, 48(4), 85-115.
- 이승현 · 김무영 · 엄문영(2024). 학부모 교육열의 종단적 변화 유형 탐색. **학부모연구** 11(4), 53-76.
- 이영희 · 윤지현 · 백병부 · 이은비(2019). 교육 개혁의 방향에 관한 학생·학부모·교원 및 교육정책전문가들의 인식 조사 연구. **열린교육연구** 27(4), 75-103.
- 이정아(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조기교육에 대한 인식연구. **사고개발**, 11(1), 131-153.
- 이종각(2013). 한국 학부모 교육열의 정책적 시사점과 새 연구 방향의 탐색. **한국교육** 40(4), 121-153.
- 장유정 · 정희정(2020). 기독교사의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주관성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67, 165-197.
- 장준호 · 김종민 · 최원석 · 이동희(2025).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담론 분석: 심층질문조사(FGI)에 기초한 맥락적 해석과 시사점. **교육문화연구** 31(4), 5-32.
- 전희일(2016). 인공지능 알파고 시대의 부모교육. **부모교육연구**, 13(1), 93-108.
- 정희정(2021). 코칭 수퍼비전 인식에 관한 연구: Q방법론적 접근. **코칭연구**, 14(6), 143-162.

- 주영호(2020).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정책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육정치학연구**, 27(4), 57-86.
- 주동범(2018). 학부모 학교활동 참여의 교육적 시사점 고찰, **학부모연구**, 5(2), 1-18.
- 최윤진·심재휘(2018). 초등학교에서의 자녀 학업성취, 학부모 학교참여, 학교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혼합연구. **교육학연구** 56(3), 89-121.
- 한창훈·조영아(2016).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4), 79-107.
- 함영주(2018). 자녀의 학교유형별 기독교학부모 교육의식 분석과 기독교교육적 제언. **개혁논총**, 47, 137-164.
- Krueger, R. A., & Casey, M. A.(2014).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5th ed)*.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Inc.
- McKeown, B., & Thomas, D. B.(2013). *Q methodology (Vol. 66)*. Sage publications.
- Shemings, D.(2006). *Quantifying'qualitative data: An illustrative example of the use of Q methodology in psychosocial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147-165

Abstract

Parent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A Subjective Study on Entrance Examinations

Lee, Yeon-Sung*

This study utilized Q methodology to select the types of private academies for students with school-age children and the choices made, sampled 33 confirmed statements, and analyzed them with 31 students from each academy. The results are as follows. ‘Success = Child’s Satisfaction’ (Type 1) recognizes that a successful life is one in which one is satisfied with one’s own life without being tied down by college entrance exams. ‘College entrance exam preparation = Parents’ advice’ (Type 2) recognizes that parents should be supporters in their children’s lives and guide them in college entrance exams and career paths when preparing for college entrance exams. ‘School education = pursuit of the whole person’ (Type 3) believes that success is living together with neighbors as a democratic citizen with the right values. ‘Entrance exam = respect for children’s choices’ (Type 4) considers entrance exams as a process of children’s lives, and therefore places importance on conversation with children in order to respect and support their opinions. Through this, we hope to establish a proper education system for parent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o use the study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 preparing for their children’s entrance exams.

Keywords :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entrance examination, Q methodology, parents education

* Doctor of Education, Education Assistant Pastor, Baekseok University Presbyterian Church.